

그대들은 나의 자식이 아닌가.

이 현 응

기나긴 7교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 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흘깃 본 우리 집 우편함에는 편지 한 장이 꼽혀져 있었다. 그곳엔 “발신자: 하천, 수신자: 인간” 이라고 적혀 있었다.

‘누가 아직도 이런 유치한 장난을 치나?’ 란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호기심이 생겨서 난 그 편지를 집으로 들고 왔다. 가방을 던지고 곧장 침대에 누워 그 편지를 펴 보았다. 꽤 정성들여서 쓴 글씨였고 내용도 뻔뻔했다. 그래서 난 그것이 장난이란 생각을 버렸다.

To. 인간

안녕한가? 난 인간들이 흔히 부르는 하천일세. 될 수 있는 한 이 편지를 보내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인간이 지켜야 할 한계를 너무나 벗어났기에 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네. 난 수십만 아니, 수 백만년간 이곳을 지키고 있었네. 처음엔 미생물들이 내 몸에서 자라더군. 그 전부터 외로웠던 난 그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며 길렀다네. 그들은 꾸준한 진화를 거쳐서 여러 종류의 생물이 되더군. 몇몇은 나의 곁을 떠났고 몇몇은 내 품안에서 있었지. 그들은 서로를 먹고 먹으며 살고 있었어. 무엇인가가 죽는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고 돌아가니 난 이해할 수 있었다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70만년 전, 두발로 걷는 생물체인 그대들이 나타났지. 다른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그대들도 나에게 주로 의존해서 살았다네. 나에게서 나의 자식과 다름없는 물고기들과 물을 가지고 갔었어. 난 그대들을 그저 또 하나의 자식으로 생각하였지. 어떻게 보면 자네들이 있어 세상이 활기차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었지. 내가 자네들을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만큼, 자네들도 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때론 나를 신처럼 여겨주는 곳도 있었다네. 그렇게 우리들은 서로를 아껴주며 살았지. 물고기들이 자꾸 사라져 가더군. 하지만 참을 수 있었네. 물고기들은 끝없이 다시 알을 낳고 또 그 알이 자라기 때문이었네.

하지만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버렸네. 1900년대 쯤 되었을걸세. 자네들은 기름덩어리들과 이상한 화학물질을 나에게 쏟아 붓기 시작했네. 남아있던, 또 내가 보호하고 있던 내 남은 물고기들이 그것들에 의해 다 죽었네. 울분이 섞인 피눈물이 흘렀지만 자네들은 반성하기는커녕 해가 갈수록 갑자기 더 많은 폐수와 오염된 화학물질을 나에게 뿌려댔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었네. 자네들조차도 다 내가 기른 것들이기 때문이었지.

하천을 건너던 한 아이가 혐오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더군. 코를 틀어막고서.

그래서 난 죽어가는 나를 보게 되었는데. 파랗던, 또 투명했던 나의 얼굴은 어느새 검은색으로 뒤덮여져 있었다네. 몸에는 쇠붙이, 과자봉지, 비닐봉지, 썩어가는 물고기들이 섞여져 있었지.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나는 견디지 못하고 나를 찾아왔던 인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네.

난 인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을 지켜보았고 인간들을 길러주었네. 인간들은 나를 몰라주어도 되네. 몰라주어도 기쁜 것이 바로 어머니들의 마음 아니겠는가? 하지만 절대 나를 이용하진 말아주게. 그대들만 나의 자식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즉 내가 기른 모든 것들이 나의 자식일세. 제발 그대들은 그대들의 형제이자 나의 자식들 또 그대들의 어머니인 나를 해치지 말아주게. 그대들은 모르겠지만 난 살아있네. 숨을 쉬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죽은 것은 아니네. 나도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네. 하지만 그대들은 내가 죽은 듯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가. 그대들은 이 편지가 나의 마지막 부탁이자 경고인 것인 줄 알아주었으면 한다네.

From: 하천.

P.S: 이 편지를 받는 인간은 부디 이 편지의 내용을 다른 인간들에게도 말해주길 바라네.

이렇게 편지는 끝났다. 내 손에는 땀에 젖은 글씨들이 번지고 있었다. 무엇인가가 허탈하고 허망한 느낌. 또 미안한 느낌들이 합쳐졌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이런 편지까지 썼을까? 답장을 써주고 싶었다. 정말 미안하다고.

인간은 하천에게 너무나 몸쓸 짓을 하였다. 인간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다른 자식들을 죽게 만들었고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 초기 인간은 아무런 힘없는 생물체였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하천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인간은 오만하였다. 그들은 끝없는 것을 하천에게 바랬고 하천은 모든 것을 부담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천에게 모든 것을 떠맡겼다. 그러자 하천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살아가기 힘들게 되었다. 숨을 안 쉬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다 죽은 것은 아니다. 하천은 살아있다. 그들은 느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하천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단순한 이익을 위해 우리의 어머니를 죽인다면, 우리마저도 곧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